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고 조선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해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매일이라도 보고싶은 미더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군의 모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군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격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경기대회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도 사격을 잘하지 못하면 막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총을 잘 쏘아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대회를 조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격경기를 시작할 때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사격경기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속에서 선발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군종, 군단급, 개인별 등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에 참가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평시에 련마한 사격술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하여 높은 점수를 맞을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진행된 사격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33군부



대, 제604군부대가 1등, 조선인민군 해군, 조선인민군 제287군부대, 제318군부대가 2등,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제569군부대가 3등을 쟁취하였다.

개인별 등수에서는 조선인민군 제380군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 리영철, 제604군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 강은철, 중대장 박인숙동무들이 1등, 조선인민군 제488군부대관하 중대장 리상철동무가 2등,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중대정치지도원 전영걸, 제233군부대관하 중대장 리광혁, 제549군부대관하 중대장 김광현, 제287군부대관하 중대장 한우주동무들이 3등으로 평가되었다.

경기대회에서는 시상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진행한 사격경기대회를 통하여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자신들부터가 명사수가 되

여야 모든 군인들을 명사수, 명포수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격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파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조선로동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사격경기대회에서 울린 총성은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과 타

격부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훈련을 시작하는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구령이 내리자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영웅한 비행대들과 각종 지상포들에서 시뻘건 불줄기들이 연해연방 뿐이지 고 목표구역들에서는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아올랐다.

우뢰같은 폭음과 포성이 하늘과 땅을

진감하는 속에 목표들이 송두리채 날아나는 것을 보면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탁관에 넘쳐 환호를 울리며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혁명적 신념과 배짱의 최고화신이 신희세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닮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훈련은 가슴후련히 결속되었다.

훈련장 상공에 축포탄이 장쾌하게 터져 올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가슴마다에 희열을 더해주었다.

훈련은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 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령으로 조선인민군을 천만대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군으로 키워주시고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대로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인민군 장병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 같이 수호할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테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철의 정예대 오인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은 금성 철벽이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이 오늘 진행된 훈련을 보면서 중대를 펼펼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의 집단으로 꾸릴 결심을 더 굳게 가지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중대에 돌아가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다진 맹세대로 싸움준비 완성과 전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중대를 무적 필승의 전투대오,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만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 예술 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 예술축전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제251군부대, 제905군부대, 제565군부대, 제1821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과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관하 잠수함 730호 해병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중대군인들은 이야기와 노래 《백두산 절세위인들과 초도병사들》, 저대 2중주와 중창 《어머니 이야기 꽂이 됩니다》, 대화시와 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막간곡 《바다속의 정든 집》, 합

창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 실화 《장군님의 마음안고 왔습니다》, 2중창과 방창 《불타는 소원》, 극중창 《사회주의 지키세》, 합창 《오성 산에 발걸음소리 울린다》, 독창과 합창 《조국찬가》, 대화시 《영원한 삶의 품》, 기타명창 《정찰병의 노래》, 토막이야기 《두 병사와 분대장》, 합창 《7.27 행진곡》, 시와 합창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멸치리》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보람찬 군무생활을 이어가는 자기들의 복된 삶과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의 두리에 정과 뜻으로 굳게 뭉친다.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보람찬 군무생활을 이어가는 자기들의 복된 삶과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의 두리에 정과 뜻으로 굳게 뭉친다.

쳐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을 감명깊이 펼쳐보였다.

공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한 목숨바쳐 싸우려는 신조,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발사된 총탄마냥 곧바로 가려는 일편단심, 사회주의 조국을 총폭탄되어 응호보위하려는 인민군군인들의 결사의 각오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열병식 광장에 원수님을 모시고 전승의 보고를 드릴 중대군인들의 철석같은 맹세에 자기들의 불같은 마음도 합치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공연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뜨겁게 끓어 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 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대군인들이 정책적 대가 뚜렷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1821군부대, 제565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과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관하 잠수함 730호 해병들이 당군인 우리 군대의 성격과 사명, 혁명적 본래가 무엇인가에 해답을 주는 종목들을 무대에 올리었으며 인민군대의 세포이고 기본전투단위인 중대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자기들

의 모습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였다고, 공연을 잘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 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힘있게 과시한 군인들이 앞으로도 훈련과 군무생활에서 보다 큰 군공을 세워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대예술소조활동에 계속 큰 힘을 넣어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혁명가들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 사랑의 현지지도길 우에서

창조와 혁혁의 거세찬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공화국은 오늘 세계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속도로 이 땅 위에 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불과 몇 해어간에 세상에 소리쳐 자랑할만한 수많은 창조물들이 완공되었고 또 일어서고 있다.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인민국장, 룽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방상장, 창전거리 살림집들과 평양민속공원, 통일거리운동센터,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이 자랑찬 건축물들이 일떠선 것은 그리 멀지도 않은 지난해였다.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떤 놀라운 전변이 펼쳐지고 있는가?

온 학자 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자기의 멋을 자랑하며 특색있게 일떠섰고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평양체육관이 새로 개건되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문수지구에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문수물

놀이장이 떳들어지게 일떠섰으며 평양시 교외의 미림지구에는 승마구락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져 인민의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마식령지구에서도 스키장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으며 세포동판에서는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방대한 개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어느 것이나 다통이 큰 일관이고 모든 것이 다 세계적 준이다. 그 규모와 질은 물론 속도는 또 얼마나 놀라운가. 말그대로 비약의 열풍이다.

이 경이적인 현실은 온 나라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는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궂은비 내리던 지난 7월 어느 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창 건설 중인 옥류아동병원에 나오시었다.

흙탕물을 밟으시며 병원의 여유곳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은 한 아이가 울면 모두가 따라 살림집으로 훌륭히 완공될 수 있을 때문에 입원실에 침대

를 많이 놓으면 안된다고 깊은 밤에도 이를 새벽에도 찾으시고 매 층의 도내에는 타일을 붙이지 말고 잔디밭을 조성해 주어 어린이들이 뛰어 놀다가 넘어져 도 상하지 않게 하라고 세심히 이르기도 하였다.

지난 8월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말타기에 편리하게 잔디 및 토사 주로를 잘 닦으며 실내 승마 훈련장에 텁밥 같은 것을 두통하게 깎아주어야 한다고. 아

외에 원형 승마 훈련장을 더 건설하고 토사 주로에서 말 탈 때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승마 주로로 곳곳에 사람

들이 말에서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 물들도 설치해 주어야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 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완전 무결한 살림집을 과학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에 하는 그이의 뜨거운은 정에 떠받들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으로 훌륭히 완공될 수 있었다.

곳은비 내리던 지난 7월 어느 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창 건설 중인 옥류아동병원에 나오시었다.

흙탕물을 밟으시며 병원의 여유곳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은 한 아이가 울면 모두가 따라 살림집으로 훌륭히 완공될 수 있을 때문에 입원실에 침대

장을에서 스끼를 타며 날아내리는 행복의 전경이 현실로 펼쳐지는 공화국의 모습 속에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원원을 이 땅에 하루빨리 꽂고 퍼뜨려 조선을 세계의 상상봉에 옮겨세우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리상이 어려워지고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협신의 세계가 비껴 있다.

그이의 위대한 협신, 원대한 리상 속에 공화국은 그 폭과 깊이, 속도와 질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엄한 대건설의 전성기를 펼치며 약동하는 짐을 힘으로 세울 것이다.

비범한 예지와 출중한

령도력을 지니고 숭고한

인민사랑의 장정을 이어가

는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

을 영도자로 모시였기에

공화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이 땅에서는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찬란한 래일이 펼쳐질 강성국가의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정경철

어린이들의 동심과 기호에 맞게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느라 마치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박물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든다.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미술 작품들이 병원내부의 벽면들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 미술 작품들에도 후대들을 위해 바치시는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비껴 있다.

지난 10월 어느 날 원공을 앞둔 옥류아동병원 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종양 홀에 이르시여 아크릴화 «세상에 부럽 없어라»를 보시면서 이 것이 진짜 그림이라

그날밤 평양미술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코나큰 믿음을 받아안았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미술대학이 위주가 되어 평양시안의 미술창작기관들과 함께

구강병원 형성도안을 지도하여 주실 때에 병원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점도 함께 꾸려줄 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비오는 날은 날 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에는 상점 위치도 세심히 물어주시였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손길 속에 류경구강병원에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상점도 훌륭히 꾸려질 수 있었다.

본사기자

병원 안의 상점

형성도안들을 한장한장 펼쳐가시던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상품 전령대 도이 도안대로 만들며 구강위생에 도움을 주는 매 상품들의 진열도 꼭 그대로 하라고 이르시였다. 사실 구강병원에 상점이 꾸려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경에 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세심한 지도의 결과였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은 수준에서 완성된

훌륭히 꾸려진 상점을 돌아보시던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상품 전령대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형성도안들을 펼치시였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 시하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은 수준에서 완성된

구강병원 형성도안을 지도하여 주실 때에 병원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점도 함께 꾸려줄 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비오는 날은 날 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에는 상점 위치도 세심히 물어주시였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손길 속에 류경구강병원에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상점도 훌륭히 꾸려질 수 있었다.

본사기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 만

모의 건설 전투로 온 나라 방방곡곡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지도우에 하나의 점으로 표시된 무도와 장재도, 월내도를 비롯한 작은 섬에서 까지 천도개벽의 새 역사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 지금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강력한 군력과 자립 적민족 경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펴시하며 나날이 변모되어 가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구절구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맷 박치는 호소문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진군속도, 새 세기 비약의 속도를 보내주시였다.

문수물놀이장에 행복의 웃음소리 그칠 줄 모른다



평양의 자랑을 더해주는 세계적 수준의 문수물놀이장이 일떠선 때로부터 보름남짓한 기간 각계층의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로 련일 홍성이고 있다.

15만 8,000m²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면적을 가진 문수물놀이장에는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려진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문수기능회복원, 실내체육관 등 인민들이 사계절 물놀이를 하며 휴식하는 데 필요한 온갖 조건들이 그 끝에 갖추어져 있다.

밝은 해살이 비쳐드는 실내물놀이장에는 7.62~10m의 높이와 80~92m의 주로를 가진 물미끄럼대들, 73.6m²로부터 305m²의 면적

희한한 물놀이장

을 가진 각종 크기의 수조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누구나 취미와 소질에 따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제일 높은 물미끄럼대를 타고 수조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초, 그때의 폭감이란 이루현연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모든 공간을 합리적으로利用한 야외물놀이장도 장판이다.

야외물놀이장에서 첫눈에 안겨오는 것은 하늘높이 치솟아오른 물미끄럼대들이다. 이곳에는 4m로부터 최

고 18m까지에 달하는 물미끄럼대들이 있는가 하면 베섯조 핵형 물미끄럼대, 단김식 물미끄럼대, 물결파 물미끄럼대, 도해번 강물미끄럼대, 사발물미끄럼대, 급강하물미끄럼대 등 이름도 회귀한 물미끄럼대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강파 바다가 엇갈리는 듯 한강이 드는 물미끄럼대, 폐속정의 선창에서 날바다를 헤쳐가는 폐감을 맛볼 수 있는 물미끄럼대, 끝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듯 한강을 주는 물미끄럼대 등 각이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물미끄럼대들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을 위해 베푸시는 은덕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 것인가를 온넋으로 절감하였다.》며 홍분된 심정을 터치고 있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지구상에 물놀이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아도 이처럼 크고 현대적인 물놀이장은 없다며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문수물놀이장!

그것은 인민 모두가 안겨사는 사회주의 조국의 품이 얼마나 따사로운 것인가를, 인민들이 누려갈 사회주의 문명이 어떤 것인가를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장의 곳곳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낸 사람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 한다.

본사기자 흥법식



실내물놀이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야~』하는 탄성을 자기 눈을 의심한다.

여기가 물놀이장이 맞긴 맞나 해서이다. 물놀이장이라기보다 마치 전설속의 통궁인듯, 환상 같은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감탄을 자아낸다.

형태도 각이하고 색깔도 다양한 특색 있는 물미끄럼대들, 울리뻗고 내리뻗고 앞으로 치달은 활동적인 모양도 멋있지만 인공바위우에서 『쏴-쏴-』 소리내며 떨어지는 폭포수의 절경은 볼수록 경탄이 절로 터져나오게

전설속의 통궁인가

동물놀이수조, 파도물놀이수조를 비롯하여 모양과 물깊이, 기능이 다양한 각종 수조들마다에서는 떠들썩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홍성이다.

힘과 용맹을 시위하듯 던져드는 파도를 맞받아 정성껏 혼쭐이를 터치며 쏜살같이 미끄러져내리는 급강하물미끄럼대는 청년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런

가하면 눈앞이 아찔하게 미끄러져내리다가 순간에 우로 솟구치며 물우에서 판성렬차를 타는 감을 주는 판성렬차식 물미끄럼대도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이곳에는 바다물이 출렁이는 바다물수조를 비롯하여

고부른다.

물결파 물미끄럼대, 도해번 강물미끄럼대,

열림식 물미끄럼대, 판성렬차식 물미끄럼대… 그중에서도 18m의 높이에서 저공으로 급강하비행하듯 20m/s의 속도로 쏟살같이 미끄러져내리는 급강하물미끄럼대는 청년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런

즐거움을 더해주는 야외물놀이시설들

가하면 눈앞이 아찔하게 미끄러져내리다가 순간에 우로 솟구치며 물우에서 판성렬차를 타는 감을 주는 판성렬차식 물미끄럼대도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이곳에는 바다물이 출렁이는 바다물수조를 비롯하여

고부른다.

물결파 물미끄럼대, 도해번 강물미끄럼대, 열림식 물미끄럼대, 판성렬차식 물미끄럼대… 그중에서도 18m의 높이에서 저공으로 급강하비행하듯 20m/s의 속도로 쏟살같이 미끄러져내리는 급강하물미끄럼대는 청년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런

가하면 눈앞이 아찔하게 미끄러져내리다가 순간에 우로 솟구치며 물우에서 판성렬차를 타는 감을 주는 판성렬차식 물미끄럼대도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이곳에는 바다물이 출렁이는 바다물수조를 비롯하여

고부른다.

물결파 물미끄럼대, 도해번 강물미끄럼대,

열림식 물미끄럼대, 판성렬차식 물미끄럼대… 그중에서도 18m의 높이에서 저공으로 급강하비행하듯 20m/s의 속도로 쏟살같이 미끄러져내리는 급강하물미끄럼대는 청년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런



청량음료점, 한증방도 있어

문수물놀이장에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청량음료와 레시피들을 들며 즐겁게 휴식할 수 있도록 급양봉사시설들도 갖추어져 있다.

실내물놀이장의 1층과 2층에는 청전해맞이식당에서 운영하는 해맞이 청량음료점과 해맞이 커피점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간이 음식들과 각종 청량음료들을 봉사하고 있는데 누구나 좋아하고 있다.

문수물놀이장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독특한 치료효과를 내는 9개의 한증방들인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수영이나 물놀이에 필요한 시설들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수물놀이장에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물놀이시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의 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체육들도 그

흔히 갖추어져 있어 더욱 인기있다.

문수물놀이장에는 실내체육관이 따로 있는데 이곳에는 배구장과 농구장, 바드민턴장과 같은 체육시설들이 꾸려져 있다. 여기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탄

력망이다. 마치 교예배우라도 된 듯 갖가지 재주를 부리며 탄력망에서 뛰어오를 내기기를 하는 사람들… 그 옆의

체력완전에 좋은 운동기재들

한쪽벽면을 통채로 채운 벼랑타기재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바줄에 매달려 험한 벼랑과 같은 벽에 난 홈들을 짚고 오르는 벼랑타기재는 청년들이 좋아한다.

운동기재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새가 없다. 이곳에는 다리운동, 달리기운동, 등운동, 허리운동, 한손운동, 아령운동, 계단오르기운동, 당김운동을 비롯한 운동에 필요한 각종 기재들이 있어 수영복차림으로 운동에 여념이 없는 사

람들을 볼 수 있다.

물놀이시설들과 종합적인 운동기재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에 좋은 것이어서 물놀이장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체력단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동윤





금강산 견주암의 가을

최근에 새로 나온 가요 『조국찬가』에는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편 이 강산』이라는 구절이 있다. 가요의 이 구절에 나오는 참매는 조선의 국조이다.

일반적으로 국조로는 해당 나라들에서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지고 친여진 새 또는 특산종의 새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조에는 해당 나라의 풍토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참매는 우리 나라에서 번식하고 겨울도 나는 사철새이다. 성숙된 수컷의 몸무게는 500~800g, 몸길이는 403~576mm, 꼬리길이는 149~285mm, 부리길이는 18~22mm이다. 암컷의 몸무게는 640~100g, 몸길이는 466~600mm, 꼬리길이는 221~275mm, 부리길이는 19~25mm로서 수컷보다 크다.

다 자란 수컷의 이름에는 흰 눈썹무늬가 있으며 대개 리모운은 검은색이고 뒤쪽은 밤색도는 검은색이다. 부리는 짧고 앞들이 구부려졌으며 다리는 가늘고 긴데 연한 분홍색을 띤다. 등, 어깨, 허리부위는 연한 검은색이며 꼬리는 밤색을 띤 검은색이고 끝은 흰색이다. 가슴, 배, 다리 깃은 흰색인데 가로 난 검은 밤색의 무늬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참매는 보

길이는 466~600mm, 꼬리길이는 221~275mm, 부리길이는 19~25mm로서 수컷보다 크다.

참매의 먹이는 주로 쥐류와 꿩, 비둘기, 산술새와 같은 새류이다.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가 섞인 숲에서 주로 산다. 『깻, 깻, 깻』

하고 예리한 소리를 낸다.

참매는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번개 같이 내리꽂힌다. 보통 무리를 짓지 않고 한마리씩 생활하며 번식기간에만 짝을 이룬다.

우리 나라에서 참매는 보

길이는 466~600mm, 꼬리길이는 221~275mm, 부리길이는 19~25mm로서 수컷보다 크다.

참매는 오랜 역사적 기간 우리 인민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도서 『고구려고분연구』(2001년)에 『해를 리용한 사냥모습은 갑신무덤, 세칸무덤, 안악1호무덤, 장천1호무덤, 마선구1호무덤 등에 그려져있으며...』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먼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은 참매를 길

들여 꿩, 메토끼와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널리 이용하였다.

몸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부리와 억센 발톱, 매우 빠른 속도, 령리하고 결쾌 있는 기질, 균형 잡힌 몸매와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참매는 오랜 역사적 기간에 사람들 속에 널리 알려지고 친숙해졌다.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국조로 인민들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기개, 새 세기 비약의 한길로 출발을 응하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 기상을 나라의 국조 참매를 통해서 더욱 자랑스럽게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심장대혈관질병수술에 성공

얼마전 김만유병원 심장관외파병동의 의료집단이 심장대혈관질병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환자는 어느 한 성기판의 사무원이었는데 3년 전부터 마르판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마르판증후군은 온몸의 결합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성 질병이다. 사지나 손, 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눈의 수정체나 순환기의 이상을 동반하는 증세를 선천적으로 태어난 유전병을 가리켜 마르판증후군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만유병원의 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놓고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

었다. 심장외파부문을 가까운 몇몇 안에 세계적 높이에 올려세울 각오 밀에 3개 판막동시치환성형술, 상공정맥 및 하공정맥폐쇄증에 대한 수술, 선천성심장혈관기형수술 등 선진적인 수술 방법들을 확립한 이들은 합병증이 적은 새로운 심장수술방법을 도입하여 9시간에 걸친 수술진료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의료인들의 혼신적인 노력으로 수술 후 환자의 심장혈관계 통증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게 되었으며 45일 만에는 호전되어 환자가 병원문을 나서게 되었다.

본사기자

혈압내림약을 쓸 때 고려할 문제

* 혈압내림약을 처음 쓰거나 새로운 약을 쓰려고 할 때에는 낮사이 혈압변화정형을 측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사용량, 회수,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 혈압내림약은 적은 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량을 늘여야 한다. 단번에 많은 양을 써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압이 비교적 높은 사람은 자기 전에 혈압내림약을 써서 혈압을 낮추어야 한다.

*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당뇨병이 겹친 고혈압 환자들은 오전에 약을 먹고 2시간 지나서 앓아 있을 때와 있을 때의 혈압을 재보아야 한다.

* 약을 먹은 후 혈압이 정상으로 되었다 하여 인차

본사기자

한증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다. 하지만 한증도 자기 몸에 맞게 해야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증은 일반적으로 85~

본사기자

민족의 자랑 - 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고구려과성

많은 관광자들이 찾아오는 평양민속공원에는 고구려관청이 있다.

봉건 국가가 발생하면서 생겨난 관청은 해당 사회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국왕의 통치를 집행한 기관이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고구려관청은 고구려의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건물로서 2층으로 된 남문을 중심축으로 하여 정남문이 있고 넓은 마당을 지나서 기본사무청이 한눈에 안겨온다.

고구려에서 최고집권자는

국왕이며 해당 분야를 맡아보는 관리들을 임명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의 발전을 이루하고 봉건적 통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좌우 양쪽에는 아전들이 일보던 방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건물은 자연물을 4각형 모양으로 정밀하게 다듬어 땅에서 1.5m가량 되게 터를 만들고 그 위에 나

고구려에서는 중앙 통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연한 주 - 군 - 현의 지방령 속 통치체계를 세워놓았다.

지방령 속체계는 제일 높은

급으로 주를 두고 중앙의

지시를 주에 내리면 주는 군

에, 군은 현에 지시를 전달하는 식의 통치체계이다.

주 - 군 - 현에 설치된 관청들에서는 다 봉건 국가가 인민들에게 부과하는 조세, 공물 등을 독촉, 납부하는 일, 군역, 부역에 인민들을 동원하는 일 등 인민들에 대한 수탈임무를 담당수행하였고 범죄에 대한 감독, 재판 등 의 임무도 맡아 하였으며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제사, 의례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의 중앙과 각 지방에 설치된 관청들은 나라의 전면적 발전을 이루하고 국왕의 봉건적 통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본사기자 김동윤



공화국의 영예를 떨친 바둑강자

얼마전 중국에서 진행된 2013년 『상려컵』 항주 국제 도시바둑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조대원선수가 1등을 차지하였다.

우승후보로 지목된 남조선선수와의 7회전은 우승에

부를 결정하는 판권적인 경기였다. 1회전부터 6회전까지 다 이기고 7회전에 참가한 남조선선수와의 경기에서 조대원선수는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민첩한 수읽기로 중반단계에서부터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면서 상대를 펴동에 물어넣었다. 하여 두집 반이라는 차이로 그를 통째로 밟아놓았다.

바둑경기는 높은 정신력과 지능의 대결일 뿐 아니라 탐리파 인내력의 대결이기도 하다.

조대원선수는 비록 1회전에서 진 상태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전술적 의도와 특기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자신

기초한 수읽기로 중반단계에서부터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면서 상대를 펴동에 물어넣었다. 하여 두집 반이라는 차이로 그를 통째로 밟아놓았다.

바둑경기는 높은 정신력과 지능의 대결일 뿐 아니라 탐리파 인내력의 대결이기도 하다.

조대원선수는 비록 1회전에서 진 상태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전술적 의도와 특기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자신

기초한 수읽기로 중반단계에서부터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면서 상대를 펴동에 물어놓았다.

본사기자

무우는 감기, 천식, 목쉰것, 식중독, 당석증 등 치료에도 효과 있는 『야』이다. 신선한 남새가 적은 겨울철에 생무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본사기자

무우는 만능의 보약

『무우가 나는 계절에는 의사가 필요없다.』는 말이 있다.

무우속에는 디아스트제, 프로페아, 리파제 등 소화효소들과 항암성, 호흡지연 성작용을 하는 비타민 그리고 칼시움, 철, 린 등 광물질, 식용섬유질인 리그닌이

무우는 감기, 천식, 목쉰것, 식중독, 당석증 등 치료에도 효과 있는 『야』이다. 신선한 남새가 적은 겨울철에 생무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본사기자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리고 소화기관을 활발하게 움직여주며 음식물통과

시간을 줄이고 나쁜 물질을

빨리 제거하도록 한다.

본사기자

식사하던 손님이 접대원을

접대원이 주저없이 대답

했다.

『이 빵 유모아』

우에 그린 빵우에 그림은 보

그림은 보

기 좋소! 그런데 머리카락이 있

구만...』

그림수밖에 그린거니까요.』

본사기자

</